

# 원융화합 종단안정...국경없는 보살행 괘목

## 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대중사 (전) 재임시 업적과 사회활동

### 각종 제도개선사업 추진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아니 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당선자로서의 기쁨은 다하고 슬한 번민과 고뇌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총무원장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종단과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고뇌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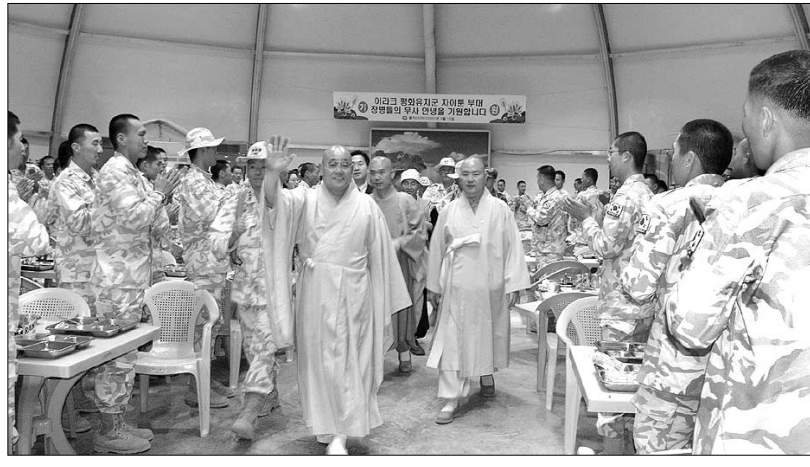
2003년 2월 24일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인곡(仁谷) 법장(法長) 대중사는 '슬한 번민과 고뇌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길을 마다않고 갔다.

스님은 1941년 6월 15일 충청남도 서산군 읍면 성암리에서 부친 김기홍 거사와 모친 가신 보살 사이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

'자비의 보험금 나눔 운동'을 펼쳐 약금 20억여 원을 확보했다. 10개 교구본사에 실비양로시설 설립을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시켰고, 세탑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승려노후복지 대책팀을 구성했다.

종단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승가 교육제도개선 사업도 추진했다. '승가교육 개선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승가교육계 선안을 마련한 다음 현대적인 승가교육체계의 단초를 마련했다.

2004년에는 승종 진작과 종단 위계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 동안 끊겼던 대중사 법계 품서를 거행했다. 종지종풍 선양을 위해 종도 도의 국사 차례제를 병행했을 뿐 아니라 (조계종사) 고종 세례를 발간해 중



법장 스님은 원적시까지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고, 그 영역은 국내외를 넘나들었다. 사진은 스님이 5월 12일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등 총 24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000여평 건물 4000여평으로 조성된다.

스님은 부처님 뜻을 펴기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북한불사는 2007년까지 만세루, 3층 석탑, 요사채 복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국민들을 위해 '자비의 탁발'로 20여억 원을 모금한 것은 종단 초유의 일. 2004년 5월에는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을 건립했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포함한 현대식 종합복지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법장 스님은 원적시까지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고, 그 영역은 국내외를 넘나들었다. 사진은 스님이 5월 12일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등 총 24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000여평 건물 4000여평으로 조성된다.

스님은 부처님 뜻을 펴기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북한불사는 2007년까지 만세루, 3층 석탑, 요사채 복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국민들을 위해 '자비의 탁발'로 20여억 원을 모금한 것은 종단 초유의 일. 2004년 5월에는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을 건립했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포함한 현대식 종합복지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법장 스님은 원적시까지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고, 그 영역은 국내외를 넘나들었다. 사진은 스님이 5월 12일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등 총 24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000여평 건물 4000여평으로 조성된다.

스님은 부처님 뜻을 펴기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북한불사는 2007년까지 만세루, 3층 석탑, 요사채 복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국민들을 위해 '자비의 탁발'로 20여억 원을 모금한 것은 종단 초유의 일. 2004년 5월에는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을 건립했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포함한 현대식 종합복지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법장 스님은 원적시까지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고, 그 영역은 국내외를 넘나들었다. 사진은 스님이 5월 12일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등 총 24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000여평 건물 4000여평으로 조성된다.

스님은 부처님 뜻을 펴기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북한불사는 2007년까지 만세루, 3층 석탑, 요사채 복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국민들을 위해 '자비의 탁발'로 20여억 원을 모금한 것은 종단 초유의 일. 2004년 5월에는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을 건립했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포함한 현대식 종합복지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법장 스님은 원적시까지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고, 그 영역은 국내외를 넘나들었다. 사진은 스님이 5월 12일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등 총 24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000여평 건물 4000여평으로 조성된다.

스님은 부처님 뜻을 펴기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북한불사는 2007년까지 만세루, 3층 석탑, 요사채 복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국민들을 위해 '자비의 탁발'로 20여억 원을 모금한 것은 종단 초유의 일. 2004년 5월에는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을 건립했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포함한 현대식 종합복지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법장 스님은 원적시까지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고, 그 영역은 국내외를 넘나들었다. 사진은 스님이 5월 12일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등 총 24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000여평 건물 4000여평으로 조성된다.

스님은 부처님 뜻을 펴기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북한불사는 2007년까지 만세루, 3층 석탑, 요사채 복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국민들을 위해 '자비의 탁발'로 20여억 원을 모금한 것은 종단 초유의 일. 2004년 5월에는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을 건립했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포함한 현대식 종합복지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법장 스님은 원적시까지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고, 그 영역은 국내외를 넘나들었다. 사진은 스님이 5월 12일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등 총 24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000여평 건물 4000여평으로 조성된다.

스님은 부처님 뜻을 펴기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북한불사는 2007년까지 만세루, 3층 석탑, 요사채 복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국민들을 위해 '자비의 탁발'로 20여억 원을 모금한 것은 종단 초유의 일. 2004년 5월에는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을 건립했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포함한 현대식 종합복지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헌신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중사는 역대 총무원장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했다.

"항상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스님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유자재한 대화를 펼쳤으며 불교의 대중화, 사회화를 위해 헌신했다.

그래서 상좌스님들은 '말씀보다 행동이 우선하는 분'이었다고 회고한다.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에 선출되기 전부터 조계종 전국본사주지연합회 회장과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을 비롯해 충남 지방경찰청 경승실장, 한국유엔자 운동연합 공동대표, WFB세계불교도우회 한국지부 총재, 동국학원 재단이사, 대한불교청년회 부총재 등 불교계 활동을 벌였다.

### 장기기증 문화 싹틔우고 사회형 폐지 운동 앞장

특히 스님은 종단 내적으로도 종단 개혁과 정화를 위한 실천정신으로 언제나 선봉에 섰다.

스님은 1994년 개혁회의위원, 1999년 법규위원으로서 종단개혁에 일익을 담당했다. 1998년부터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친목모임인 전국교구본사주지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북한산 터널 관통 반대운동, 98년 종단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스님은 1994년 3월 불교계 장기기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회'를 창립해 사회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뒤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장기기증 운동은 물론 장묘문

화개선을 위한 화상유인 서약을 통한 사업과 어려운 환자 돕기 운동도 펼쳐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복지단체로 성장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선택(禪眼)을 정립하고 정법을 수호하여 인류를 구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역사와 사회에 여법하게 구현하여 청정·화합수행의 선풍을 이루고자 1999년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을 설립해 선종진좌에도 앞장섰다.

1986년부터 흥성교도소 종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소자 교정교화운동을 펼쳐왔다. 2001년 6월 스님은 사회복지 증진과 교정의 사회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정대상 자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법장 스님은 오갈 데 없는 아이들 17명을 수탁사에서 돌봐왔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학

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도 펼쳐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이밖에도 스님은 1994년 사형제도 폐지운동에 앞장섰고, 북한 동포의 식량부족과 기아문제, 탈북자 대책, 국제난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법장 스님은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 조그만 무엇인가라도 행하고 실천하는 삶,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불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1995년 3월, 생명나눔실천회 창립후 첫 신장이식을 마친 환자를 위로하는 법장 스님.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생명나눔 운동에 앞장섰다. 사진제공=생명나눔실천본부

## 승려노후복지·교육체계 개선 큰 원력

### 北·美·이라크 방문 '평화 메신저' 역할

다. 속명은 계호(界鎬). 수행남자인 사촌형의 모습에 매료돼 현 덕숭총림 방장 원담 스님을 은사로 60년 출가해 65년 탁승사 정해사 능인선원 등에서 5년간을 성단했다.

80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스님은 82년 총무원 사회부장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불교의 사회참여와 복지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법장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제31대 총무원 정책기조 및 중점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함께 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을 구현하기 위해 4대 정책 기조 아래 31개의 구체적 사업을 제시했다. 4대 정책 기조가 바로 △수행종풍 진작으로 거듭나는 종단 △참여 속에 함께하는 원융종단 △종도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 △미래를 지향하는 효율적인 종단 실현이다.

법장 스님은 4대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조계종 최초로 '비구니 부장'을 임명, 비구니 스님들의 지위 선양과 능력 발휘에 관심을 보였다. 스님은 "비구니 스님이 과반수가 넘고 여성의 역할이 커지는 사회흐름에 따라 비구니 스님을 부장에 임명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스님은 또 취약한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단사 정립 전기를 마련했다. 종단의 실질적인 화합과 중앙과 교구본사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교구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1사할 1가정 결연 후 원 운동을 전개할 때다.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과 국장들이 종로구청 내 소년소녀가장과 결연할 때, 스님은 당일부터 결연 소년소녀가장에게 대학 진학 시까지 장학금 지원원을 약속했다.

### 불사능력 탁월

법장 스님은 총무원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렸다.

1992년 수덕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수덕사 종합불사 계획을 수립해 가람을 정비하고 수행환경을 보전했다. 95년에는 수덕사 성보박물관을 건립해 경허·만공 스님의 유품을 비롯한 성보문화재 1000여점을 전시했다.

총무원장 당선 후 스님이 가장 힘을 쏟아 추진했던 불사는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한국불교 미래를 개척해 나갈 전통 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는 공주 마곡사 인근에 3년간 국고 122억원, 자부담 122억원

### 국내외 사회활동 활발

법장 스님은 생전 '1달에 1만km'를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원적에 들기 4개월 전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이라크 미국 북한 대안 사할린 일본 등 6국을 순방했다.

이와 관련 법장 스님의 사행인 설정 스님

##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관음기도도량' 삼각산 개운사 법회안내

### 관음재일 보선 큰스님 (대흥사 회주) 초청대법회



- 일시 : 9월 27일 (음, 8월 24일) 오전 10시
- 장소 : 개운사 대법당

매월 관음재일마다 전국의 고승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초청법회를 병행합니다.

### 백만독 다라니 기도

입재 : 10월 17일 (음, 9월 15일)

- 설악산 봉정암 철야정진 기도 ● 일정 : 10월 9일 (음, 9월 7일) - 10월 10일 (음, 9월 8일)
- 향일암, 보리암 철야정진 기도 ● 일정 : 11월 8일 - 9일 (음, 10월 7-8일)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개운사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57 전화 (02)926-4069, 924-3341 / 팩스 (02)924-3342

회주 : 종범, 주지 : 공운, 총무 : 운공, 재무 : 각연, 교무 : 혜각, 노전 : 지관, 외 사부대중 합장